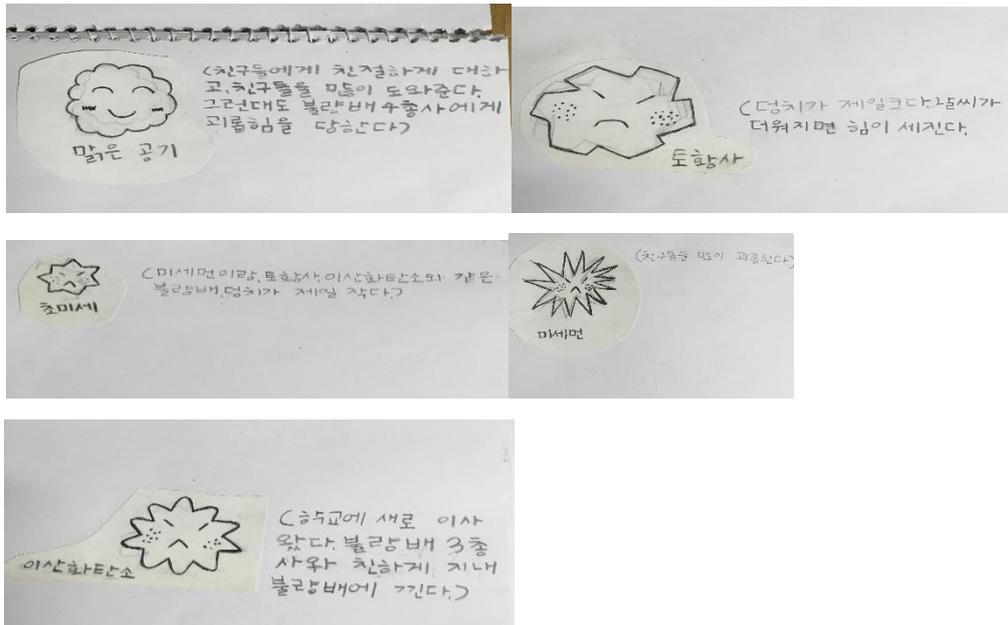


등장인물 소개



4학년 3반에 맑은 공기가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4학년 3반에 불량배 삼총사가 있지 뭐예요? 그 불량배 삼총사가 누구냐고요? 미세먼지, 토황사, 초미세였답니다. 불량배 삼총사는 맑은 공기를 괴롭히려고 도서관에 있는 맑은 공기의 눈을 피해 교장실로 숨었어요. 그때는 마침 교장선생님께서 2학년 1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 주시는 중이었어요. 맑은 공기가 도서관에서 나오자 불량배 삼총사는 맑은 공기를 교장실로 유인했어요. 그리고는 교장실 문을 닫고는 맑은 공기를 괴롭혔어요. 한참 있다가 불량배 삼총사와 맑은 공기가 나왔어요.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똑같이 괴롭힘을 당했죠. 맑은 공기는 점점 몸이 약해졌어요. 그러던 어느날 이산화탄소가 이사를 왔어요. 이산화탄소는 불량배 삼총사와 친하게 지내 이산화탄소도 불량배에 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량배 사총사가 되었어요. 이산화탄소가 태어난 곳은 공장이라요.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만든거예요. 그나저나 맑은 공기는 몸이 점점 더 나빠졌어요. 이산화탄소까지 불량배에 끼어서 더 힘들어진거예요. 맑은 공기의 웃음소리도 점점 사라졌어요. 우리가 만든 미세먼지, 토황사, 초미세, 이산화탄소 때

문에 맑은 공기의 몸이 망가졌으니 우리가 책임져야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맑은 공기의 몸을 튼튼하게 해서 웃음을 찾아 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맑은 공기의 친구 청나무가 껍을 내어 불량배들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불량배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지요. 그래서 맑은 공기가 학교에 올 때마다 따로따로 괴롭혔어요. 홀로 괴롭히다 보니 불량배를 그만하는 애도 몇 명 생겨났지요. 결국 모두 맑은 공기를 괴롭히는 일을 중단했어어요. 맑은 공기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자 몸이 점점 좋아졌어요. 맑은 공기는 건강해지자 웃음소리는 커졌어요. 앞으로 4학년 3반에 웃음소리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